

한국과학사에서 본 석주명

신동원*

<차례>

- I.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
- II. 낙농학을 포기하고 나비 연구의 길로
- III. 학문 별레 석주명
- IV. 석주명이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비밀
- V. 미완의 세계 나비분포 연구
- VI. 한국과학사에서 본 석주명

국문요약

한국 나비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진 석주명은 단순한 생물학자를 넘어선 인문사회학자이자 과학사상가였다. 1929년 일본의 가고시마 농고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나비연구를 시작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생물학 분야에서 1933년~1950년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산 나비의 종을 확정짓고, 나비의 분포를 파악했다. 1945년 이후 그는 한국산 나비에 관한 역사적, 언어학적 고찰 등 “나비의 한국학”으로 관심을 넓혔다. 더 나아가 그는 과학사적 측면에서, 1949년 한국 최초의 박물학사 책인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를 집필하는 한편, 제주도 방언 연구와 지역학적 연구를 수행했고, 세계어인 에스페란토어와 조선어의 관계 설정에 대해 사유했다. 그의 나비에 관한 생물학적 연구와 그가 수행한 인문사회학적인 연구에는 변종과 종의 문제, 표준과 차이에 관한 철학적, 방법론적 유사성이 담겨 있었다. 나비연구, 방언연구, 국학연구 등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특수를 통해 보편으로 접근한다.’는 것, ‘보편의 이름으로 특수를

*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과 교수

무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일종의 과학 사상이었다. 이에 입각해 그는 실제의 자연세계에서, 언어 세계에서, 제주도라는 지역 세계에서 그것을 실증해내려고 했다. 그 작업의 결과로서 나비연구, 방언 연구, 제주도 지역학 연구, 박물학사 연구, 에스페란토어 연구가 보고된 것이다.

주제어 : 나비연구, 박물학, 한국과학사, 과학사상가, 제주학, 에스페란토.

I.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

“국가가 있는 민족은 어느 분야에 있어서나 자국을 중심으로 한 연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연표의 내용들은 첫째로 창의를 있어야겠고, 그것이 세계적 또는 한국적이라야만 했다. 박물학 사상이 철저히 보급만 된다면 인종차별이 없고 계급이 없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이 지구상에 건설될 것이 기대되는 것이니 여기에 취급된 제 사항에는 이 점에 관련된 것이 적지 않다. 편자는 이 연표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과학사 내지 세계문화사에 호흡이 맞도록 힘써 보았다(석주명, 1992a : 151쪽).”¹⁾

석주명은 마흔 한 살 때(1949년)에 정리한 다소 생소한 제목의 책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의 머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나비박사 석주명은 왜 이런 책을 썼을까?

박물학이란 자연에 대한 탐구를 뜻한다. 자연에는 물(物)이 있는데, 이에겐 생물과 무생물이 포함된다. 그 물에 대해 지식을 넓히는[博] 학문이 박물학인 셈이다. 석주명은 박물학과 과학을 비슷한 것으로 간주했

1) 석주명의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신양사, 1992)는 1949년에 정리되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출판되지 못하다 1992년에서야 세상에 빛을 보았다.

다. 박물학이 ‘물’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면, 과학은 (자연에 대한) 학문의 전공[科]를 중심으로 보는 차이만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박물학연표를 통해 세계과학사를 이해한다고 말한 것이다. 석주명의 나비 연구가 박물학의 한 부분이니 그가 박물학연표를 쓰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는 않다. 나비와 박물학에 대해서 석주명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비의 학문이라도 깊이 들어가려면 지질학, 물학(物學)을 포함하는 박물학(Natural History)도 바라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박물학에 상대되는 물리, 화학도 최소한도로 알아야 자기의 나비의 학문을 자연과학의 계통에 갖다 맞출 수 있다. 동시에 Natural History (자연역사 즉 박물학)에 또 한번으로 상대되는 Human History (인문역사 즉 협의의 역사)에도 손이 뻗어야 인생과의 관계에까지 가져가서, 철학적 경지에 들어가 비로소, 나비의 학문도 계통이 서는 것이다(석주명, 1992b : 105-106쪽).”

책 이름에서 ‘한국 본위’라는 표현이 확 눈길을 끈다. ‘한국 본위’를 썼을 때에는 단순한 세계박물학연표, 즉 세계과학사연표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참고한 많은 책들이 그러한 부류였다. 이런 책에는 한국의 박물학 또는 과학 전통이 빠져 있다. 석주명이 왜 책 제목에 ‘한국 본위’를 썼는지는 분명하다. 그가 한국인은 일단 한국을 출발점으로 삼아 세계과학사로 지식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홍이섭이 “세계사와 대조한 조선사도해표”(1946)를 쓰고 최남선이 “조선본위 중등동양사”(1947)와 “동양본위 중등서양사”(1948)를 썼는데(석주명, 1992a : 164쪽), 석주명의 입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었다.

석주명의 박물학에 대한 인문학적 생각은 ‘한국 본위’보다도 더 눈길을 끈다. 그는 “박물학 사상이 철저히 보급만 된다면 인종차별이 없고 계급이 없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이 지구상에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

다고 했다. 아니, 박물학 사상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이런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자연을 보고 배운다는 점이 그것이다. 박테리아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 얽여 있는 생태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 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은 무의미한 게 될 것이다. 또 석주명이 봤을 때,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러한 불평등이 없는 진보의 길로 이끌고 있었다. 또 세계과학사와 세계문화사는 서로 한 호흡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한국의 과학 전통을 논하고, 평등 세상을 논하는 석주명은 단지 나비박사가 아니었다. 그는 나비연구를 통해 생물 세계의 질서를 보았고, 그 질서가 민족이나 인류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나비를 연구하면서 지역과 풍토로서 한국, 더 나아가 문화와 역사로서 한국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그는 다양한 생물종으로 이루어진 나비의 변이를 보면서 차이와 차별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로 나비의 세상을 밝히듯, 과학자의 연구가 세상을 더욱 나은 곳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어서 통합적 고찰, 요즘 식으로 말하면 통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단, 출발은 구체적인 데서 더욱 일반적인 것으로, 한국 본위에서 세계의 과학으로 소통할 것. 그럼으로써 그는 과학 수준이 턱 없이 낮은 한국이 세계 과학의 도도한 흐름에서 길을 잃어 헤매거나, 스스로만 최고라고 여기는 폐쇄적인 자기 최면에 빠지지 않으리라 본 것이다. 또한 이랬을 때 과학이 과학 그 자체의 탐구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문화를 성숙시키고 세상을 밝히는 인문학적 성찰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 글은 석주명의 업적을 한국과학사적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석주명의 삶과 학문적 업적 전반에 대해서는 이병철의 노고가 있었고, 석주명의 생물학적 연구 활동의 진전 과정과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는

문만용의 우수한 연구가 있다(이병철, 2002; 문만용, 1997). 이 글의 많은 부분이 이 선행연구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리뷰논문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그렇지만 이 글은 한국과학사의 관점에서 석주명의 삶과 학문의 흐름을 정리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아직 활용되지 않은 여러 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과학사상가로서 석주명을 생각해 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서 보이지 않는 논의를 담는다.

II. 낙농학을 포기하고 나비 연구의 길로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스물한 살 석주명이 얻은 직업은 고등보통학교 선생이었다. 그는 1929년 함흥의 명문인 영성고보의 박물학 교사가 되었으며, 이태 후에는 모교인 개성의 송도고보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1908년 평양의 부호의 3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했다. 13세 때(1921년)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평양의 명문 사립고보인 송실고보에 입학했다. 이듬해 학교에서 동맹휴학을 주도한 후 자퇴하여 개성의 송도고보로 전학하여 18세 때(1926년) 남은 4년의 과정을 마쳤다. 그는 졸업하자마자 일본의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 농학과에 입학했다. 이 곳에서 그는 3년 동안 농학과 박물학을 공부한 후 귀국하여 교사가 된 것이었다(이병철, 2002 : 45-68쪽).

이런 교사의 길은 대체로 당시 한국인 젊은이가 성공할 수 있는 최대의 성취였다. 그보다 스무 살 더 많은 송도고보 스승인 조류학자 원홍구(1888-1970)도 그보다 15년 앞서 일본의 가고시마고농을 졸업하여 송도고보 박물학 교사가 된 바 있었다(『브리태니카백과사전』, 『원홍구』 항목 참조). 식민지 교육은 비정상적이어서 이과를 전공하는 대학이 없었다.

고등전문학교가 하나 있었지만, 교수 자리는 모두 일본인의 몫이었다.

그가 농학 공부의 꿈을 펼치게 된 데에는 송도고보의 분위기의 영향이 컸다. 설립자 윤치호가 낙농과 축산을 장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목장과 실험실 등이 분야의 교육시설이 뛰어났다(이병철, 2002: 58-63쪽). 특히 학교에서 들은 작은 나라 덴마크의 농업의 흥성은 그의 꿈을 자극했다(석주명, 1992b: 5쪽). 졸업하자마자 그는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의 명문 고등농림학교인 가고시마 고농에 유학했다. 뛰어난 학자가 되겠다는 야심이 엄청 큰 청년이었지만, 고농 졸업 후에도 석주명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했다. 그의 공부가 짧았기 때문이다. 그는 더 공부하기 위해 미국유학을 결심했다. 축산학과 낙농학이 발달한 미국 유학에서 승부를 걸어보려고 작심했다(석주명, 1992b: 5-6쪽).

심지어 그는 결혼이 학문의 장애라고 여길 정도였다.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그는 1930년 한 일간지에 대서특필 기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폐허를 벗어나서 창파에 몸을 던져 -남편에게 소박맞은 꽃 같은 여자가 폐허 같은 이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대동강구유역 벽하(碧下)의 비극”(『중외일보』, 1930.3.3)의 원인제공자 ‘남편’이 바로 그였다. 자충지중은 이러하다.

“석주명의 부인 최씨(22세)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3년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유학을 떠났다. 귀국한 후에는 그가 또 다시 청천벽력의 말을 했다. 이제 미국유학을 떠날 터이니 15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최씨는 ‘애정도 없는 폐허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할 바에는 차라리 저승에 가서 모든 것을 잊고 사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여’ 강물이 뛰어들었다.”

석주명은 이런 현상을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 그의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 1930년도 기록 면에는 도저히

들어갈 내용이 아닌, “전후 일본유학생들의 이혼선풍이 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석주명, 1992a : 151쪽). 당시 일본유학생들이 귀국한 후 첫째 하는 일이 이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신식문물을 접한 청년들이 부모들이 정한 옛 결혼관습을 거부하는 게 하나의 유행이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한 석주명은 미국 유학의 꿈을 접었다. 그는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처지의 평범한 교사에 불과했다. 그가 가진 자산이라고는 송도고보와 가고시마 고등농림에서 배운 것이 전부였다.

고등보통학교 시절, 그의 스승 원홍구는 1918년 송도고보에 부임하여 한국 조류의 수집과 연구에서 대가의 반열에 들어가던 박물학자였다. 그의 멋진 새 박제 컬렉션은 송도고보의 자랑거리이자 식민지 조선과학의 자랑거리였다(문만용, 1997 : 13-15쪽). 석주명은 송도고보에서 스승 원홍구가 20년 동안 새 하나 연구로 어떻게 대가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생생히 목격했다.

석주명은 일본을 대표하는 농업전문학교인 가고시마 고농의 높은 벽을 뚫었다. 아마 그 이전까지 이 학교를 다닌 사람은 스승 원홍구와 석주명 둘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문만용, 1997 : 11쪽). 1908년에 세워진 가고시마 고농은 인근 지역에 광대한 실습 목장, 실습림, 식물원을 갖춘 농림 분야에서 일본 제일을 자랑하는 학교였다(이병철, 2002 : 70쪽). 이곳에서 3년 학습은 비록 짧았지만, 그가 연구할 분야와 그 연구를 뒷받침할 안목과 내공을 길러주었다.

무엇보다도 때마침 일본에서 곤충학 분야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일본에서 식물, 약초, 병원균, 조류, 해산물 등 실용적인 학문 분야는 곤충학보다 앞서 인기를 끌었고 학문의 영역을 확보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무엇보다도 석주명의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에 잘 드러나 있다. 그

가 일본에 도착한 1926년에 일본 곤충학회지인 『곤충』이 창간되었다. 그가 귀국하던 1929년에는 일본 나비동호회가 설립되었고 기관지 제피루스(*Zephyrus*)를 펴내기 시작했다. 특히 가고시마 고등농림의 생물학 관련 과목의 교수진이 쟁쟁했다. 그는 졸업 이후 가고시마 고농 학자의 네트워크와 끈끈하게 연결되었다. 아마도 그가 이점이 일본 유학의 최대 성과였을 것이다.

“축산 선생은 시연치가 않고 반면에 우수한 동식물선생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석주명, 1992b: 5쪽)에 석주명은 생물 분야를 파고들 결심을 했다. 특히 고농의 곤충학 교수인 오카지마 긴지(岡嶼銀次)는 일본곤충학회장을 지낸 우수한 학자였다. 또 그는 축산, 낙농 대신에 곤충연구를 권한 바 있었다(석주명, 1992b: 8쪽).

거기서 석주명은 낙농과 축산은 뒷전이었고 곤충학이 솔깃했다. 그의 취향과 적성이 곤충학에 더 맞았던 것이다. 게다가 뛰어난 교수의 훌륭한 강의가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사실 축산, 낙농과 견주어 보면 곤충 연구는 별로 빛이 나지 않는 분야였다. 어렸을 때부터 곤충에 큰 흥미를 가졌던 사람으로서 미국 유학길이 막힌 막바지 상태에 이르러서야 석주명은 할 수 없이 ‘덴마크 농업’의 꿈을 포기했을 정도이다. 우리는 이후 그가 나비연구의 세계적 권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의 심정을 헤아리기 힘들다.

“그래도 졸업하고는 중학교 박물관교사를 하면서도 낙농 토대로 하는 축산을 머리에 그리면서 여비나 되면 해외로 뜰 계획이었다. 그러나 배운 것이 농생물학이고 더욱이 곤충과 식물병리가 주과목이었으니 재직 중에 전공과목에 관계있는 일을 하나 해보기로 하였다(석주명, 1992b: 5-6쪽).”

한갓 곤충을 연구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곤충 학자가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다. 남들은 박물관

교사의 취미 생활 정도로 여겼음직하다. 석주명도 이 사실을 자각했다. 그는 수업시간 때 곤충학자 파브르(1823~1919) 이야기를 꺼냈다. 1936년 무렵 나중에 영문학자가 된 학생 김병철은 그날 수업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내 나이 열여섯 살 때의 어느 날 생물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은 파브르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해주셨다. 파브르는 대학 교수도 아니고 아주 벽촌의 중학교 생물 선생이었는데 『파브르곤충기』라는 업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로 치면 학술원상을 타게 되었다.…… 선생님은 파브르의 행동을 따르겠다고 강조하시며, 그 까닭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파브르의 연구 방법을 동물생태학이라고 하는데, 그의 현재 위치가 일개 두메 중학교의 이름 없는 교사이면서도 남이 하지 않는 동물생태학, 즉 곤충 연구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정진한 그 노력에 감탄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셨다(석주명, 1992b : 76-77쪽).”

왜 곤충 중 하필이면 나비였을까? 이에 대해 석주명은 “안력에 자신이 없으니 곤충을 택해야겠고 곤충이라면 누구나 밝는 첫 단계인 ‘나비’를 채집해야겠다.”고 생각했다(석주명, 1992b : 6쪽). 귀국 후 고보 선생으로서 그가 했던 일은 방학 숙제 같은 나비 수집이었다. 또한 이 모임에서는 회보를 발간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나비를 채집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방학과제물로 나비 채집을 요구했다. 차츰 그의 나비 표본은 불어만 갔다. 함흥에서 개성으로 온 후 그는 동료교사이자 곤충학자인 김병하와 함께 송경곤충연구회를 조직했다. “우리말로 곤충 이름을 통일”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중외일보』, 1930.3.3). 그의 연구 활동이 시작되었다.

Ⅲ. 학문 별레 석주명

“파브르처럼 10년간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죽어라 하고 노력을 쏟으면 무슨 일이고 간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었다. 석 선생님 자신도 조선인 중학교의 일개 조선인 선생에 지나지 않지만, 조선 나비를 죽어라 하고 10년간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선 나비에 관한 한 파브르처럼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셨다.”(이병철, 2002: 76-77쪽).

“남 안하는 분야 10년만 파라. 나처럼 성공한다.” 이는 결과론적인 말이다. 이에 이미 성공한 다음 되돌아보면서 열심히 하니 성공했다는 승자의 여유가 묻어 있다. 남이 안 하는 분야에 10년 판다고 해서 모두가 석주명만큼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석주명 전후에 박물학에 뛰어든 여러 사람의 학자들이 있었고, 그들 또한 매우 열심히 연구를 했다. 선배 조복성은 최초의 한국인 생물학 논문을 쓴 인물로 나비를 비롯한 여러 곤충을 연구했다. 정문기는 어류를, 도봉섭은 식물을, 그의 매부인 심학진은 약초를 연구했다(석주명, 1992a: 128-159쪽). 모두 나름대로의 명성과 직위를 얻었지만, 모두 석주명만한 명성은 누리지 못했다.

석주명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 즉 ‘세계적’인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식물과 동물을 연구했다. 그들 또한 전국을 돌면서 채집했다. 또 자신의 성과를 보고했다. 그들은 한국에 서식하는 각종 동식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분류하고, 명명했다. 곁에서 봤을 때 석주명이 하는 작업도 그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석주명이 학계에 발표한 논문은 일본의 곤충 학계가 들쩍일 정도로 주목을 끌었다. 그의 논문이 일본 대가 학자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매우 설득력 있는 자신의 이론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석주명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과학자의 성공에는 분

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아니다. 뭉뚱그려 말해 때, 장소, 개인의 자질과 노력, 이에 덧붙여 이 모든 것이 한데 작동케 한 뜻하지 않은 행운이 곁들여졌을 때 성공하게 된다. 단 성공의 정도는 자신이 아우르는 과학 범위의 정도와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분명히 석주명의 경우도 그랬다.

석주명은 자기 성공의 첫 출발을 우연한 행운으로 보았다.

“채집한 나비를 조사해서 논문을 만들어야겠다고 착상한 해가 1931년이었다. 그때까지의 문헌은 적당한 것도 없었고 그나마 구득하기 어려워서 처음에는 문헌없이 자가류로 원시적 방법의 분류에 착수하였었다. ... 문헌이 손에 없어서 각종의 학술상의 명칭은 모른다 할지라도 각종의 생체 더욱이 개체변이에 대해서는 꽤 자세히 알고 있었다. ... 마침 나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다음 [이 두 도감] 출판된 양하다. 뒤에 松村 박사의 대도감을 입수하여 참조하면서 나의 수집품을 조사하게 되었다(석주명, 1992b : 6쪽).”

하필이면 나비만 잡았지 아직 어떤 연구를 해야 할지 모르는 석주명을 위해 기다렸다는 듯이 책이 두 종씩이나 나왔단 말인가. 1931년 마쓰무라(松村松年)의 『일본곤충대도감』이 나왔고, 이듬해 우치다(内田清之助) 등 10여명이 편찬한 『일본곤충도감』이 나왔다. 이전까지 일본에서도 제대로 된 곤충도감이 없었다. 일부 종만을 포함한 간략한 도감이나 곤충분류학 일반에 대한 설명 또는 간단한 검색표만을 담고 있는 수준이었다(문만용, 1997 : 16쪽).

아직 풋내기 연구자 석주명은 이 두 도감을 보면서, 그간 자신이 채집한 나비가 어느 종에 속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됨과 동시에 두 저작의 취약점을 간파했다. 다시 그의 회고록을 들여다보자.

“이 책으로 조사하다가는 놀래는 때가 있었다. 나의 많은 표본이 제공

해준 지식으로는 착각이 아닌 이상엔 松村씨 책을 정정해야 될 곳이 나온다. 시골 중학 교사를 하는 약배(若輩)가 이학박사요 농학박사인 마쓰무라 씨의 저서를 정정한다고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풍부한 표본으로는 마쓰무라 박사의 저서에서뿐만 아니라 다음다음 입수한 여러 책에서 오류를 속속 발견하게 되었다(석주명, 1992b: 6쪽).”

“빨리 성공해지려면 대가를 물어뜯어라”는 학계의 속담이 있듯이, 석주명은 자신의 연구가 어떻게 하면 주목받을 것인지 거의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앞에 신나는 연구 판이 열려 있었다. 이때쯤 그는 성공을 확신했는지, 그는 낙농 축산학자의 꿈을 완전히 접었다.

석주명이 자신의 행운을 과장하는 이면에는 은근히 그가 이미 축적한 경험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두 대저작의 심각한 오류를 찾아낼만한 관찰 증거를 무수히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년 석주명의 나비 채집 관찰은 스무 두 살의 나이(공교롭게 딱 100년 전이며 둘의 나이도 거의 같다)로 비글호 항해에 올랐던 다윈의 경험을 떠오르게 한다. 1831년 비글호를 타고 유럽에서 남미까지 이르는 5년 동안 다윈은 온갖 생물의 변이를 보았다. 지역에 따라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생물 종을 보면서 그는 종을 결정짓는 데 한 종의 변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러던 차 다윈은 때 마침 적자생존이론을 주장하는 맬더스의 『인구론』을 읽게 되는 행운을 누림으로써 진화론의 메커니즘을 완성했다. 개성 근처의 수많은 나비를 채집하면서 석주명의 경우도 다윈의 경우와 비슷하다. 수만 마리의 나비의 종을 관찰하면서 종과 변종의 차이를 느끼던 중, 석주명은 두 도감을 읽고서 나비의 종을 가르는 자신만의 새로운 기준을 틀어막게 되었다.

1931년 이후 10년 동안 석주명은 미친 듯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스스로 정리했는데, “석주명저 주요업적 목록

급 해설”(1941년)이라는 리스트 첫 면에는 자신의 논문 통계를 실었다 (석주명, 1992b : 350쪽).

1933년 2편
 1934년 4편
 1935년 5편
 1936년 8편
 1937년 13편
 1938년 15편
 1939년 13편
 1940년 4편
 1941년 5편

모두 69편이다. 여기에는 1932년에 쓴 공저 1편과 다소 불만족스러운 논문 4편(나중에 정식논문으로 발표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논문의 질을 따지기 이전에, 편수만 놓고 보더라도 석주명은 일제강점기 중 가장 많은 논문을 낸 한국인 학자였다. 특히 1937년~1939년 세 해에 그가 발표한 논문 수는 각기 13편, 15편, 13편으로 경이적인 수치이다. 모두 단독 논문이었다. 이 3년 사이에 그는 한국 나비에 관한한 세계적인 학자로 발돋움했다. 이후 1950년 그가 죽을 때까지 연구 실적을 더 본다면, 120여 편 이상의 논문과 영문판 포함 단행본 6권, 유고 6권을 남겼다. 이 중 90편 이상이 나비에 관한 연구였다(문만용, 1997 : 13쪽). 적어도 연구에 관한한 그는 학문벌레였다.

IV. 석주명이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비밀

“나는 어떨 때는 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 나비 16만 여 마리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질리는 이야기이다. 집념이 넘쳐 그런 것인지, 미련 많은 것인지 보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일을 석주명이 했다. 반면에 곤충도감의 저자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단지 몇몇 샘플을 가지고 같은 종, 다른 종을 구별했다. 석주명과 기존 연구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다윈의 작업에서도 확인된다. 다윈의 진화론이 선행 연구자인 라마르크보다 설득력이 높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수많은 개체를 수적으로 다뤘기 때문이다. 그는 들판의 식물을 다룰 때에도 곤락을 대상으로 했다. 다윈은 그 가운데 공통적인 것들이 얼마, 특별한 부분이 달라진 것들이 얼마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다뤘다. 이는 몇몇 고정 형을 가지고 종을 판별한 선행연구자와 결정적으로 달랐다. 다윈은 평균종과 변이를 겪은 변이종의 평균값으로 종과 변종을 결정지었다.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수치가 다윈의 진화론이 도그마가 아니라 과학임을 입증했다.

석주명의 나비 연구도 비슷했다. 마쓰무라를 비롯한 도감의 저자들의 관심은 일본의 자생 곤충을 분류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곤충학에 대한 관심이 막 태동한 때였기 때문에 일본 학자의 경우에도 그들이 대상으로 삼은 각 곤충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없었다. 아무리 교수, 박사, 대가라 해도 기초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뽀족한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들은 그 나름대로 수준에서 일본 곤충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했다. 더욱이 다루는 곤충의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 그들은 많지 않은 샘플에 기초한 연구를 바탕으로 곤충의 종을 구별했다. 또한 먼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학명으로 붙었기 때문에 연구자들

은 자신이 새로 발견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폐단도 있었다. 석주명이 읽은 『곤충도감』 책들은 바로 이런 오류를 심각할 정도로 담고 있었다.

바로 그 때, 오로지 나비만 파고든 석주명 같은 젊은 학자가 그 허점을 파고 든 것이다. 특히 나비 종은 그 어떤 곤충 종보다 다양했기 때문에 석주명은 더 좋은 기회를 얻었다. 다시 그의 회고록을 잠깐 보도록 하자.

“나는 참고서를 입수하기 전에 내가 그때 있던 개성 지방의 나비의 형편을 꽤 알고 있었다. 어떤 종류는 풍부하고 어떤 종류는 그 반대로 적고 어떤 종류는 산기(産期)가 길고 혹은 짧고 또 종류에 따라서 변이성에 강약이 있다. 더욱이 ‘은점표범나비’ 같은 것은 물론 그 이름도 모르면서 변이성이 실로 강하여 양 극단의 개체는 그것만으로는 물론 별종으로 보일 정도라는 것까지도 알았었다. 이제 참고서만 입수하면 학명 같은 것은 간단히 찾아낼 수가 있겠지 하고 책에 손대고는 그렇지 않은 데 놀랐다. 책에 있는 기록에 맞는 개체만 취급한다면 취급 못할 개체들은 버려야만 할까? 사실 학자 중에는 이 취급키 어려운 개체를 버리고 형편이 좋은 것만을 취급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이 버린다는 표본이 더 귀한 것이다. 학자들이 개체변이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때문이요. 만일 개체변이에 대한 지식만 풍부하다면 취급키 곤란한 개체가 있을 수가 없다(석주명, 1992b: 6-7쪽).”

개체변이 설명이 독자들에게 조금 어려웠다고 느꼈는지, 석주명은 좀 더 쉬운 비유를 든다. 키가 대략 5척5촌(1척 33cm) 쯤 되는 남자라는 종이 있어 이걸 사람 남자라고 해보자. 이는 대략 남자 사람 평균치에 가까울 것이다. 근데, 어떤 학자가 샘플 하나를 구했는데, “4척쯤 되는 병신 난장이”였다. 4척 난장은 새 종이 아니라 개체변이 수준이다. 하지만 이 하나 샘플로 이를 성인 남자 일반으로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심각한 오류가 생길 것이다. 만일 수많은 성인 남자 샘플을 얻는다면,

5척5촌이 평균 성인 남자종에 가까울 것이고 4척짜리는 개체 변이로 분류될 것이다. 나비의 경우도 똑같다. 수많은 종을 모아야만 평균종을 결정하고, 약간씩 다른 것들이 단지 개체변이의 수준의 변화에 불과한 것인지, 완전히 다른 종이기 때문인지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석주명, 1992b : 7쪽).

이제 석주명의 연구가 빛날 부분이 명확해졌다.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 연구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다. 둘째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이다. 한 마디로 말해 『일본곤충도감』의 조선 부분 나비 편을 완전히 새로 쓰는 것이었다. 석주명은 이미 개성 부근의 나비 수만 개의 표본을 확보해둔 상태였다(석주명, 1992b : 7쪽). 그는 차츰 채집의 범위를 전국,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으로 넓혀나갔다. 표본의 수를 70여만 개까지 늘렸다(석주명, 1992b : 9쪽). 그는 10년 동안 신명 나게 이 일을 했고, 논문 수가 불어나는 만큼 그의 명성은 높아만 갔다. 그는 20대 후반, 아무리 늦게 잡아도 30대 초반에 이미 석학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10년 한 우물 파면 나처럼 성공한다.”는 수업 내용이 허풍이 아니었다.

이 시기 그가 주력한 일은 단순했다. 나비를 잡고, 나비의 특징을 파악하고, 모든 나비의 구석구석을 채고, 그걸 분석하여 논문을 쓰는 일이었다. 70만 개 샘플은 약 250여개의 종으로 수렴되었다(석주명, 1992b : 9쪽). 그는 한국에 서식하는 나비의 전모를 분명하게 제시한 불후의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샘플만 많다고 해서 저절로 종과 변종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단지 개체의 변이에 불과한 것인지, 다른 종인지 결정짓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야만 했다. 선행 연구자들이 단지 개체 변이에 불과한 것을 마치 다른 종으로 분류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석주명은 실제로는 같은 종인데, 다른 종 또는 이종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정리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러한 방식을 썼던

선행 연구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석주명은 자신은 자신이 채집한 나비를 정리하면서 이런 가능성을 터득했다고 주장했다(문만용, 1997: 19쪽).

이런 생각 그 자체보다도 더 주목할 부분이 있다. 개체의 변이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량적 형질을 추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것은 석주명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방법이었다(문만용, 1997: 19쪽). 쉽게 말해 나비 각 부위에 나타난 형태를 일일이 헤아리고, 그것의 크기를 일일이 재는 단순무식한 방법이었다.

1936년에 나온 석주명의 기념비적인 저작 “배추흰나비의 변이연구”는 167,847개체를 이런 방법으로 연구했다. 일본의 『동물학잡지』에 실린 이 논문은 일본학계에서도 경악할 정도로 엄청난 논문이었다. 배추흰나비는 한국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나비지만, 개체마다 다양성이 매우 큰 종이였다. 그렇기에 석주명은 종을 결정하기 위해 채집한 모든 표본의 암·수를 구별하고 각각의 형질 변이를 살폈다. 날개의 형태, 무늬, 띠의 색채, 모양, 위치, 앞날개의 길이를 잴다. 특히 앞날개의 길이를 mm 단위로 측정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 및 변이계수를 구하고, 성에 따른 비율을 구한 다음 하나의 그래프로 그렸다. 게다가 석주명은 같은 종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교미 중에 있는 200여 쌍을 채집하여 동종 여부를 가리는 데 썼다(문만용, 1997: 21쪽). 16만 여 마리 수치로 얻은 이른바 정규분포를 보이는 이 변이 곡선의 의미는 심장하다(문만용, 1997: 22쪽).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일군의 나비들이 이 분포에 드느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이곡선을 활용하여 석주명은 그동안 크기, 날개의 형태, 무늬의 양상에 따라 다른 종, 아종, 이형으로 보고된 20여 개의 학명이 실제로는 배추흰나비에 속하는 종임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단순히 평범한 개체변

이에 불과했다.

이런 방법을 써서 석주명은 굴뚝나비를 비롯한 다른 나비들의 동종이명을 밝혀냈다. 아울러 잘못 실린 아종, 변종을 모두 거두어냈다. 1939년 그는 그간 자신의 나비 연구를 집대성한 영문 저작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조선산 나비 총목록)을 펴냈다. 이는 국내에서 과학자가 영문단행본을 낸 유일한 사례이다. 이 책은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 한국 지부에서 의뢰한 것이다. 이 책은 “그의 10년 나비 연구를 일단락짓는 것이자, 그의 연구가 세계까지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해준 역작이었다(문만용, 1997: 26쪽).” 그는 255종의 나비를 확정하는 한편, 일부 미기록종과 함께 212에 달하는 동종이명의 목록을 덧붙였다.

나비 수만 마리에서 20만 마리에 걸치는 샘플로 얻는 그의 결론은 어느 누가 가벼이 여길 수 있었을까. 그의 논문은 신랄하게 기존의 오류를 지적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반면에 오카지마, 다나카, 에자키 등 일본 곤충학 대가들은 그를 적극 지지했다. 특히 오카지마 고농시절 그의 은사였던 오카지마는 “석주명의 정확성 덕분으로 조선산 나비의 올바른 이름과 산지를 알고자 하는 연구자는 큰 도움을 받을 것이며, 그 동안 나온 이 분야의 저작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석주명의 업적을 극찬했다(문만용, 1997: 27쪽).

석주명의 나비 연구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의 회고록 제목이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이니 그의 나비 채집은 1950년 돌발의 사고로 죽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그의 연구는 대가를 공격하는 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자신이 나비 분류에 관한한 그 분야 최고의 대가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1942년 “조선산 접류의 연구(제2보)”와 1950년에 완성된 유고 “조선산 접류의 연구(제3고)”를 통해 조선의 나비 분류 분야를 평정했다. 그간 보고된 921개 중 90%가 넘는 844개의 학명이 동종이명의

것으로 판단해 지워버렸다. 그 가운데에는 마쓰무라가 잘못 명명한 166개가 포함되어 있었다(문만용, 1997: 27쪽). 1940년대 이후 논문 편수는 적어졌지만, 그의 논문은 훨씬 굵직해져 있었다.

16만 여 마리 나비를 일일이 채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을까? 나비 한 마리 당 5분씩 든다고 가정하면 1시간에 12마리, 하루 10시간씩 이 일만 한다고 해도 120마리이다. 1달이면 3600마리, 1년이면 43200마리이다. 꼬박 4년을 채워야 하는 잡일이다. 숙달이 되어 한 마리당 2.5분이 걸린다고 해도 꼬박 2년이 걸릴 일이다. 그는 혼자서 이 작업을 했다.

“나의 기억으로 아버지는 하루에 대여섯 시간 정도를 주무셨습니다. 그분의 시간관리 태도는 가끔 사회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는 결혼식 피로연에도 겨우 5분 정도만 머무셨습니다(석주명, 2008)”.

석주명의 딸 윤희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땅콩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다(이병철: 2002: 236쪽).

아마도 석주명은 당시까지 나비에 관한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샘플로 논문을 낸 학자였을 것이다. 그는 거기서 얻어낸 데이터들로 정규분포를 하는 수학적인 변이 곡선을 찾아냈다. 그는 이 곡선을 같은 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이 수학적 결과는 채집에 들인 땀과 분석에 들인 시간이 합작한 결과물이었다. 발품, 시간, 수확화가 석주명이 얻은 세계적 권위의 3대 원천이었다.

V. 미완의 세계 나비분포 연구

“채집 구역을 확대함에 따라서 개성에서 수년간에 단 한 마리 잡혀서 귀하다고 하든 것이 많이 모인 것이었고, 그 반대로 개성서는 흔한 것이 타 지방에서는 귀한 수도 있는 것을 차차 알게 되었다(석주명, 1992b : 8쪽).”

석주명이 20년 동안 70여만 마리의 나비는 종 감별 재료에 그치지 않았다. 그 녀석들은 모두 채취 지역을 일러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석주명은 그게 자신의 새로운 연구거리를 제공하리란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어디서 귀한 것이 다른 데서 흔한 것이 되고, 다른 데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밝히는 작업 곧 분포도 작성이 그것이다.

석주명은 자신의 나비 채집 여행을 돌이켜 보았다. 그는 국내에서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대개 다 다녔다. 일본의 영토였던 필리핀, 북해도, 혼슈, 시고쿠, 쿠슈, 대만까지, 만주 일부 지역과 중국 북쪽지방의 나비도 채취했다. 아쉽게도 중국 중부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의 나비 채집 여행은 불발했다. 중일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구상을 이렇게 말했다.

“조선산을 중심으로 하여 동양 전역의 것을 잡아보고 중앙아세아, 구라파산까지를 본 후에 타 대륙산에 손을 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지구 위에 있어서의 조선 나비를 비교적으로 잘 알게 될 것이다. 금후로도 기회만 있으면 물론 국외 진출을 해야겠지만 형편이 안 되면 문헌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다. 여하튼 벌써 20년 동안 나비를 잡았고 또 앞으로 20년 동안 더 계속이 될 것이다(석주명, 1992b : 9쪽).”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조선 나비를 비교적으로 잘 알게” 된다는 부분

이다. 이는 1931년 무렵 일본인 대가의 책을 읽으며 나비 분류의 문제점을 깨달아 연구를 시작할 때와 입각점이 크게 달랐다. 향후 10년 동안 그는 조선의 나비가 무엇인지를 내부적으로 밝히는 데 주력했다. 이후 연구는 세계의 모든 나비의 유연관계 속에서 조선나비의 특성을 밝히는 작업이다.

학계에서는 흔히 “세 부류의 연구자”들이 있다. 하나는 죽어라고 한 지역의 보물을 발굴하는 한국 학자들이다. 둘째는 그들에게 초청여비를 주어 환대하며 부르는 일본학자들이다. 초청에 감격하여 애써 발굴한 귀중한 정보를 다 쥐버린다. 셋째는 일본학자의 논문을 포함하여 각 지역에서 올라온 보고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조망하는 서양인 학자들이다. 이들은 각 정보를 취합하여 전체를 조망하는 이론을 만들어낸다.

식민치하의 한국인 생물학자는 주로 첫째 부류에 속했다. 이들과 달리 석주명은 나비 분류학에서 둘째 부류의 일까지 자기가 해치웠다. 아예 한걸음 더 나아가 보통 선진국의 서양인 학자나 하는 일을 꿈꿨다. 석주명은 세계학계에서 나비의 세계분포도 작성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행히도 아직 나비 한 가지에 대한 서양 학계의 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세계 학계를 통틀어 자신이 본격적인 첫 작업을 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야심만만하게 자신이 획득한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삼아, 외국의 문헌을 참조하면서 나비의 국내분포도와 세계 분포도를 그려냈다. 자신이 정리한 한국나비 250종에 대한 국내분포도 250장과 세계분포도 250장 도합 500장이었다 (문만용, 1997 : 33쪽).

석주명의 이름을 세계학계에 또 한 차례 드높여줄 이 500장의 지도는 석주명의 보물1호였다. 그가 이를 얼마나 아꼈는지는 다음 일화에 잘 드러나 있다.

‘나비박사’라고 불린 석주명은 전쟁이 일어나자 그가 쓴 원고들을 배낭에 넣어 어디를 가나 메고 다녔다. 잠잘 때에도 꼭 껴안고 잤다.

“그 안에 뭐가 들었기에 앉으나 서나 메고 다니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라치면,

“이거이 내 생명이지요 이거이 없어도 난 독은 목숨이나 마탄가디야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누이동생에게도 늘 버릇처럼 “이거이 내 혼인데… 어케서든디 꼭 택(책)이 돼야 할텐데…”하고 걱정스럽게 말했다고는 금방 맥빠진 소리로 “안 돼두 할 수 없다. 이 난리통에 뭘 할 수 있겠다구…” (이병철, 2002: 39쪽)

1950년 석주명이 의문의 총탄으로 비명에 갔다. 이 원고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행히도 그의 누이동생 석주선이 피난길에도 이 오빠의 ‘영혼’을 챙겨 소실을 면했다(이병철, 2002: 39쪽). 그렇지만 20여년이 지난 1973년에야 세상에 빛을 봤으니……. 그가 순탄하게 살아 다시 20년 세계 나비 채집과 정리 작업을 계속했다면, 그의 세계 나비분포도는 더욱 정교해졌을 것이다. 아울러 나비의 서식을 결정짓는 기후, 풍토, 식생 등의 요인이 차츰 밝혀졌을 것이다. 또 그는 조선의 나비를 정리한 학자에서 더 나아가 세계 나비 연구의 1인자 자리를 꿰찼을 것이다. 전쟁은 한 학자의 꿈까지도 이렇게 좌절시켰다.

VI. 한국과학사에서 본 석주명

석주명의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는 지구상에 생물이 등장한 시점부터 이 책이 나오던 해까지 주요 사실을 기록했다. 책 제목 대로 책의 왼쪽에는 서기가 표기되어 있고, 오른 쪽에는 조선 연호가 단기로 표시

되어 있다. 인류 문명사에서 중요한 사건, 과학적 발견 등을 위주로 내용을 짧게 정리했다.

‘창의’가 드러나야 한다고 한만큼 옛 선조의 창의성이 한국의 박물학 선택의 주요 기준이었다. 이를테면, 기원전 957년 “조선에서 처음으로 자모철(子母鐵)을 주조함.” 서기 24~57 “유리왕이 장빙법을 사용하여 빙고를 제조함.” 등과 같이 서술했다. 또한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물에 대해서 꼭 언급했다. 침성대에 대해서는 “647, 경주에 세계 최초의 천문대인 침성대를 건조함”, 금속활자에 대해서는 “1234, 주자로 상정예문 50권을 인행함(세계적으로 금속활자 사용의 최초)”, 거북선에 대해서는 “1597, 이순신이 명량에서 철갑의 귀선을 사용해야 일본수군을 대파”라고 기록했다. 한국의 박물학 전통에 대해서는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을 특기했다. 이런 내용은 홍이섭의 『조선과학사』(1946),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1946) 등의 책을 비롯한 국학 연구의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이와 달리 일제강점기 이후의 한국 현대박물학에 관한 내용은 석주명이 최초로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석주명이 한국현대과학사 사건 전체를 꿰뚫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는 그 가운데 자신의 저작과 활동을 위치 지었다.

- 1934~42 석주명 저 『조선산 접류의 연구』 제 1-2보
- 1939 석주명 저 『조선산 접류의 연구사』, 석주명 저 『접에 관한 조선 고전의 해설』, 석주명은 조선산 접류이명록 목록을 완성
- 1942 조선박람회, 경성일보사 공동 주최로 석주명 소장 세계접류 표본 전람회 개최
- 1946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석주명장 세계접류 표본 전람회 개최
- 1947 석주명 저 『조선나비의 조선이름』, 석주명 저 『중등동물』

그는 1929년 조복성이 『을릉도산 인시(鱗翅)목록』에 대해 “조선인 단독 저술의 생물학 논문으로 최초의 것”, 1931년 김종원의 “평북 고기(古期) 암층의 연구”는 “지질광물학 방면에서 조선인 단독 최초의 논문”이라 밝힌 데서 알 수 있듯, 자신의 나비 연구가 이런 과학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잘 알았다. 또한 1926년 천문학자 이원철이 독수리 별자리에타 성의 변광의 원인을 밝힌 연구, 1930년 손금성이 미국에 두부를 학술적으로 소개한 연구, 서재필이 미국에서 돼지의 선충에 관한 연구로 “미국의 돼지 값은 절반으로 떨어뜨릴 정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구가 자신의 연표에 등록할만한 쾌거라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석주명은 자신의 저서 『박물학연표』에서 주요 저작을 최다로 올린 인물이었다. 석주명은 최초의 생물학사를 쓴 생물학사학자인 동시에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과학적 업적을 낸 생물학자였다.

석주명의 나비 연구는 당시 세계를 선도하던 물리학, 화학, 생리학, 공학 등처럼 첨단과학이 아닌 주변부의 과학이었다. 그가 과학 활동을 하는데 훌륭한 실험실, 실험기계, 시약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나비채, 편, 상자, 연필과 자만 있으면 되는 과학이었다. 반면에 나비 채집과 관찰, 분석에 엄청난 발품을 들이고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하는 ‘노동집약적’ 방식의 과학이었다.

이태규나 리승기처럼 교토대학 또는 프린스턴의 실험실을 누린 것과 달리²⁾, 송도고등보통학교 박물교사인 석주명은 학교 박물학실에서 쭉그려 앉아 이런 과학 활동을 했다. 식민지 한국에도 경성제국대학이나 경성의학전문학교에는 훨씬 훌륭한 실험실이 있었지만, 그건 대체로 일본

2) 이태규와 리승기에 대해서는 송상용의 주목(이틀테면, “이승기와 비날론”, 『한국과학재단소식』, 1993년 1월 호)이 있었으며, 최근에 김근배가 “남북의 두 과학자 이태규와 리승기”(『역사비평』 82, 2008)를 발표했다.

인 과학자 차지였다. 거기서 한국인 과학자는 일본인 과학자의 조수 노릇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이와 달리 고보 교사 석주명은 단순한 방법으로 성과 내는 것이 가능한 나비의 박물학을 택해서 그의 온 시간을 거기에 다 바쳤다. 어찌 보면, 석주명의 나비 연구는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조선인 과학자가 세계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었을까.

석주명이 영문판 책을 내며 최고의 성취를 이뤘던 1939년 『모던일본과 조선』의 한국판 잡지에서는 조선 당대 인물 100대 명인을 현상 응모하여 뽑았다(김희정 외, 2007, 493-503쪽). 100대 명인에는 문필가, 음악가, 화가, 기자, 사업가, 변호사, 군인, 스포츠맨 등과 함께 과학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과학자는 모두 9인이 뽑혔는데, 그 가운데 석주명은 없었다.

기초과학 분야로는 최규동(수학자), 이원철(천문학), 이태규(화학) 등 세 명이, 공학자로는 리승기(화학공학), 최경렬(토목공학) 두 사람이 선정되었다. 의학자가 가장 많아서 오공선(의학교육), 윤일선(병리학), 백인제(외과학), 심호섭(내과학) 등 4인이 뽑혔다. 뽑힌 과학자를 보면, 당시 대중이 선호하는 과학자 상이 포착된다. 이태규와 리승기는 교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화학자, 화학공학자였고, 이원철은 미국의 앨비언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천문학자였다. 최경렬은 교토대학 토목과 출신으로 30대 초반 한강철교(현 신인도교)를 설계해 명성을 드날렸고, 최규동은 수학은 ‘최대수’라 할 정도로 명성을 날린 중등학교 교장인 교육가로 이름이 높았다. 오공선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장 의학교장, 심호섭은 조선 내과학의 1인자, 백인제는 조선 외과학의 1인자, 윤일선은 한국인으로 경성제국대학의 정식 조교수가 된 병리학자로 학력과 경력이 쟁쟁했다. 대중의 눈으로 볼 때, 석주명은 뛰어난 연구 업적을 냈는지는 몰라도 아직 가고시마 전문학교 출신의 중학교 교사로 위 사람들에 비해 경력이 미천했던 듯하다. 이런 상황은 해방 이후에도 비슷해서, 그는 대학

에 교편을 잡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말할 부분은 과학사상가로서 석주명이다. 나비연구와 생물학 연구로부터 더 나아가 한국학과 인문학,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20세기 전반기 한국과학사를 놓고 봤을 때, 과학적 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는데 까지 나아간 과학자로서 석주명이 유일하다.

왜 어떤 나비는 넓은 영역에 걸쳐 서식하고, 어떤 나비는 특정한 곳에서만 발견되는가? 왜 지방에 따라 나비 이름이 다를까? 우리나라 최초 나비 기록은 무엇일까? 화가 남계우(1811~1888)가 그린 군집도에서 펼 펼 날아다니는 나비 종은 과연 무엇일까?

이미 나비 “조선”을 밝히려는 포부를 밝힌 석주명은 당연히 이런 의문을 품었다. 거꾸로 일지도 모르겠다. “뒀 눈에는 뒀만 보인다.”는 속담처럼 그는 족자에 걸린 한국화를 보면서 거기서 날아다니는 나비 종에 관심을 가졌음직하다. 옛 문헌을 읽을 때에도 행여 나비라는 글자만 등장해도 자기 전공 지식을 발동시켰으리라.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주위들은 나비이름을 보고 그 유래를 추정했을 것이다. 석주명은 나비를 국한하지 않고, 그것의 조선적 특성을 밝히려 하지 않았던가. 그 하나가 세계지도에 나타난 한국나비의 친연성이요, 다른 하나는 나비의 한국학이었다. 나비의 한국학, 이는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기도 했다. 이미 오랜 채집 여행 동안 보고, 듣고, 느낀 데에는 나비와 관련된 언어, 역사, 문화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작업은 『곤충도감』에 올릴 정규 후보자를 선정하는 일, 또는 박물관에 전시할 표본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었다. 그것은 분류였고, 수학 통계로 결정한 결과물이었다. 새로 할 일은 판이었다. 나비 서식 풍토에 대한 관심이자 펼 펼 나는 생물로서 나비였다. 지리와 환경에 따

라 나비의 서식 분포가 다르며, 그에 따라 나비 관련 문화도 차이가 있다. 한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르듯, 아시아 속에서 한국의 나비 문화도 다르다. 그것을 밝혀냈을 때, 한국의 위상이 파악되는 것이다.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그것은 인문학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자연과학적 관심에서 출발한 석주명의 인문학, 이 분야는 아직 천연미답의 길이었다. 그는 나비의 자연과학 연구에서 벗어나 나비의 한국학으로 나아갔다. 조선의 나비가 나비는 나비이되, 기후와 풍토, 문화에 따른 짙은 향토색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생물학과 한국학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종래 국학이라면 한문책이나 보고 읽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국학이란 인문과학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자연과학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더욱 이 생물학 방면에서는 깊은 관련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조선에 많은 까치나 맹꽂이는 미국에도 소련에도 없고 조선 사람이 생식하는 쌀은 미국이나 소련에서는 그리 많이 먹지를 않는다. 그러나 자연과학에서는 생물학처럼 향토색이 농후한 것은 없어서 조선적 생물학 내지 조선생물학이란 학문도 성립될 수가 있다(석주명, 1992b : 63쪽).”

이런 그의 태도는 석주명이 마흔 한 살 때(1949년)에 펴낸 다소 생소한 제목의 책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에 종합되었다. 글머리에 살폈듯, 그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세계과학사 내지 세계문화사에 호흡이 맞추기 위해서 그 책을 썼다.

석주명의 일생 동안 그의 머릿속을 맴돈 것은 보편과 특수이 문제였다. 생물학에서 그것은 종과 변종을 구별 짓는 일이었다. 그의 나비 연구는 궁극적으로 조선나비와 외국 나비의 같음과 다름, 더 좁게는 남쪽지방 나비와 북쪽 지방 나비의 같음과 다름을 찾아내고 그 요인을 밝히는

것이였다. 더 나아가 그는 이글에서는 살피지 않았지만, 그의 생물학적 관심은 어학으로 확대되였다. 그는 세계어인 에스페란토어와 조선어의 관계 설정, 일국의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 설정의 측면에서 표준과 변이 파악에 골몰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제국주의 일본과 식민지 조선이라는 정치적 차원에서도 그대로 연장된다. 그가 성, 민족, 계급의 평등을 논했을 때, 그는 변종과 종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이에도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나비연구, 방언연구, 국학연구 등을 관통해 나타나는 석주명의 생각은 ‘특수를 통해 보편으로 접근한다.’는 것, ‘보편의 이름으로 특수를 무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였다. 나는 이와 같은 생각을 석주명의 과학사상이라 명명한다.

그의 과학사상이 생각의 편린 또는 과도한 추상을 넘어서 하나의 사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까닭은 그의 학문 방법론의 그의 사상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실증할 수 있는 한 실제 자연세계에서, 언어 세계에서, 제주도라는 지역 세계에서 그것을 실증해내려고 했다. 그 작업의 결과로서 나비연구, 방언 연구, 제주도 지역학 연구가 보고된 것이다. 그렇기에 그의 연구가 탄탄하며, 그에 바탕을 둔 그의 사상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근배(2008), 「남북의 두 과학자 이태규와 리승기」, 『역사비평』 82.
- 김희정 외 옮김(2007), 『완역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모던일본사, 어문
학사.
- 문만용(1997), 「‘조선적 생물학자’ 石宙明의 나비분류학」, 서울대 석사논문.
- 석주명(1972), 『한국산접류의 연구』, 보진재.
- 석주명(1992a),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 신양사.
- 석주명(1992b), 『나비 채집 20년의 회고록』, 신양사.
- 석주명(2008), 『제주도곤충상』, 서귀포문화원 연구총서5, 서귀포문화원.
- 송상용(1993), 「이승기와 비날론」, 『한국과학재단소식』, 1993년 1월호.
- 이병철(2002), 『석주명 평전』, 그물코.
- 『브리태니카백과사전』, 「원홍구」 항목 참조.
- 『동아일보』, 1931.5.13일자.
- 『중외일보』, 1930.3.3.일자.

Abstract

Seok Joo-myung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Korea
: From an Entomologist to a Natural Philosopher

Shin, Dong-Won*

Seok Joo-myung, well-known for his research on butterflies in Korea, was not only a biologist, but also a liberal arts scholar and natural philosopher. After graduating from Japan's Kagoshima Agricultural High School in 1929, he returned to Korea and began studying butterflies. As known to many, he shared his knowledge on the species and distribution of Korean butterflies by publishing seventy and more papers in the field of biology from 1933 to 1950. Since 1945, he expanded his interest to the Koreanology of butterflies, which included historical and linguistic studies related to Korean butterflies. His 1949 publication entitled *World Chronology of Natural History as Seen From Korea* was Korea's first chronological book on the history of science. At the same time, he studied the use of dialect in Jeju Island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speranto and the Korean language. His biological research on butterflies and liberal arts studies deal with the problem of species and variants, and explore disparities from a philosophical/methodological perspective. The similarity between his research on butterflies, dialects, and studies on Jeju Island is the adoption of a universal approach through specialization. He adhered to the scientific thinking that it is wrong to overlook deviations for the sake of conformity. He attempted to provide evidence for such beliefs in the

* Professor of Department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KAIST

world of nature, language, and Jeju. As a result, he reported notable findings in his research on butterflies, dialects, Jeju region, history of natural science, and Esperanto.

Key Words

research on butterflies, natural history, the history of science in Korea, natural philosopher, studies on Jeju Island, esperanto.

교신 : 신동원 KAIST 인문사회과학과
(E-mail : newsdw@kaist.ac.kr)

논문투고일 2011. 12. 20.

심사완료일 2012. 02. 01.

게재확정일 2012. 02. 13.